2019. 12. 23 470호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반(反)인종차별 캠페인 및 대책 지속 추진
산업·경제	인재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직장 만들기' 지원
행재정·교육	주정부의 긴축정책에 공공·교육부문 등 반발
환경·안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30·10 운동' 보급에 힘써
도시교통	2023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을 25%까지 확대
도시계획·주택	고위험 및 노후 건물의 수리 지원 및 진단·관리 강화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강기향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상파울루	김현아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회
바르셀로나	진광선
	박정수
싱가포르	이은주
런던	정기성
비엔나	안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시드니	정용문

반(反)인종차별 캠페인 및 대책 지속 추진

프랑스 보르도市 / 사회·복지

프랑스 보르도市는 2019년 10월경 '유럽 반(反)인종차별 도시 연맹'에 가입하는 등 도시 내 인종차별과 반(反)유대인 정서 방지대책을 지속 추진 중. 이의 일환으로 보르도 시내와 인접 도시인 베글르市에 유대인 학살 피해자를 기리는 'Stolperstein[1)]'이라는 보도블록을 설치한 바 있음

배경

○ 인종차별과 유대인 차별은 인종이나 종교, 출신 국가 및 지역, 그리고 외모 등을 이유로 부당한 행위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

○ 최근 여러 연구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내 반(反)유대인 정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 반유대인 정서에 기반한 범죄 및 상해 행위가 약 74% 증가
- 또한, 프랑스인의 약 1/3이 지난 5년간 프랑스 내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인종차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

주요 내용

○ 보르도市는 수년 전부터 인종차별 방지대책을 시행 중

- 그 연장선상에서 '보르도시민평등감시센터'와 협업을 통해 공공장소, 민간서비스 공간(상점, 은행 등), 직장 등에서의 인종차별 피해 실태를 파악
  - 2019년 2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 중

○ 시는 최근 2019년 10월 15일 국제 유네스코 도시 결연단체인 '반(反)인종차별 연맹'에 가입

-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 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무슬림 증오 테러 사건과 같은 특정 인종 대상 증오범죄가 프랑스 내에서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시 차원에서 결연한 의지를 표명

1) 스톨 퍼 슈타인(Stolperstein)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및 박해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진 10x10㎝ 정육면체. 인도(人道)에 보도블록과 함께 설치

○ 2019년 3월 21일에는 유네스코와 함께 반(反)인종차별 캠페인 실시

- 이 캠페인은 다양한 출신배경과 인종의 시민 10여 명의 얼굴 사진을 담아 다음과 같은 간단명료한 질문을 던짐 - “내가 다르다고?”



[그림 1] “내가 다르다고?” 캠페인 포스터

○ 이에 앞서 市는 10개의 스톨 퍼 슈타인(Stolperstein)을 2017년 4월 6일과 7일 양일간 보르도와 베글르 시내 나치에 희생된 시민들의 마지막 거처에 설치

- 스톨 퍼 슈타인(Stolperstein)은 홀로코스트[2]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1993년 예술가 Gunter Demning이 제작
- 금속이나 콘크리트로 된 정육면체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人道)의 바닥에 보도블록과 함께 설치. 여기에는 희생자의 이름, 출생일과 사망일 등 인적사항이 새겨져 있음
- 2018년 6월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9,000여 개가 설치되었으며, 그 중 23개가 프랑스에 설치. 이 중 8개가 보르도, 2개가 베글르에 설치

2) 홀로코스트 또는 쇼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독일 제국과 독일군 점령지에서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사건



[그림 2] 보르도 시내 바닥에 설치된 '스톨 퍼 슈타인'

http://www.bordeaux.fr/p138237/lutte-contre-le-racisme-et-l-antisemitisme

https://fr.wikipedia.org/wiki/Stolpersteine

https://www.radiodkl.com/news/stolpersteine-des-paves-de-la-memoire-pour-se-souvenir-des-victimes-de-la-shoah-23568

https://fr.unesco.org/news/moi-different-lunesco-ville-bordeaux-lance-campagne-contre-racisme-discrimination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인재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직장 만들기' 지원

일본 교토市 / 산업·경제

일본 교토市는 지역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기업의 매력 전달 강화를 통한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교토 기업「일하는 방식 개혁」자기진단제도'를 개선

배경

○ **교토시 및 교토경영자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혁 대책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알릴 수 있는 '교토 기업「일하는 방식 개혁」자기진단제도'(京の企業「働き方改革」自己診断制度)를 시행 중**

- 이 제도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1,100개사를 넘는 지역 기업이 일하는 방식 개혁 대책 상황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임

○ **이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이 자기진단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혁에 필요한 대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단계별 접근으로 무리 없는 목표 설정과 계획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혁수준을 널리 알림으로써 구직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음
-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면서 자기진단 → 현황 파악→ 매력 있는 직장 만들기 → 매력 홍보 → 인재 확보라는 선순환을 실현

○ **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신속한 정보공개 등을 위해 웹사이트상에서 자기진단부터 정보전달까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존의 '도전편'에 더해 '실천편' 및 '실현편'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

새 시스템의 주요 내용

○ **웹사이트에서 보다 간단히 자기진단을 한 후에, 신속하게 정보전달까지 완결하는 체제 구축**

- 웹사이트에서 체크 형식으로 자기진단을 하면 진단결과가 표시되고 웹사이트 회원에게 자동 공개

○ **실천편 및 실현편 도입**

- 일하는 방식 개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① 자녀 생일이나 부부의 결혼기념일 등에 휴가를 주는 Anniversary 제도 시행, ② 남자직원 대상 '배우자 출산 특례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와 일 양립 지원, ③ 꿈을 목표로 일하는 직원을 응원하는 '꿈 실현 코스'를 제도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 다양화, ④ 월 3만 엔을 상한으로 종업원의 학자금 대출 변제를 지원하는 제도 등 청년층 지원, ⑤ 여성임원을 늘리고 '여성이 아니고는…'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업무를 혁신하도록 하는 등 여성직원 활약기회 증대, ⑥ 심신이 건강하다면 70세도 채용하고 80세도 계약 갱신을 하는 등 고령자 활약기회 제공, ⑦ 질병 치료 등 지속적으로 통원이 필요한 경우 1시간 단위 시간제 휴가 제도 시행 등 치료와 일 양립 지원, ⑧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활동 추진 지원 등
- 도전편에서는 방침·목표나 추진체제, 제도 등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과 관련한 '체제'를 확인
- 실천편에서는 '제도의 이용 촉진'이나 '주지·계몽', '업무개선', '실태 파악·관리' 등 기업의 '행동'을 확인
- 실현편에서는 장시간 노동 감소나 휴가 사용, 육아와 일 양립 지원, 여성 활약 지원 외에 지역활동 추진이나 재교육 지원 등 제도의 '실적·성과'를 확인

○ **전문가 무료상담 제공**

- '교토 일하는 방식 개혁 지원센터'(京都働き方改革推進支援センター)의 전문가가 조언·제안 등 상담 지원을 하고, 자기진단제도 이용도 지원
  - 무료상담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실시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58736.html

https://www5.city.kyoto.jp/kigyo/kg_106.cgi?CT=10&STC=wsr_selfcheck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주정부의 긴축정책에 공공·교육부문 등 반발

캐나다 앨버타州 / 행재정·교육

2014년 급격한 유가 하락을 기점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州는 최근 연합 보수당이 재집권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할 목적으로 2019년 10월 향후 5년간의 예산계획을 발표. 그런데 이 예산계획이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감축과 임금 및 운영비 삭감, 정부 프로그램 폐지 및 축소 등을 담고 있어 공무원노조와 교육/보건 관련 분야, 주요 도시 등의 반발을 야기

배경

○ 2015년 유가 하락과 주지사 선거에서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승리

-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던 국제유가와 함께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앨버타州는 2015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불황을 겪게 됨
- 경기침체와 보수진영의 분열로 2015년 주지사 선거에서 중도성향의 신민당이 승리하면서 앨버타州는 석유 의존적 산업에서 탈피해 산업 다변화를 꾀하게 됨
- 경기부양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신민당의 복지 및 환경 중심 정책과 석유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 특히 석유 운송을 위한 송유관 건설이 좌절되면서 크게 실망

○ 2019년 주지사 선거에서 연합 보수당(United Conservation Party) 승리

- 경기침체와 함께 캐나다 최고 실업률을 2년 동안 기록하면서 2019년 주지사 선거를 통해 앨버타 주민들은 다시 보수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
- 대규모 긴축재정을 예고한 보수당은 2019년 10월 24일 1차 예산안 발표를 통해 보건, 교육, 공공 부문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
- 강력한 긴축정책에도 2019-20년의 재정지출은 4.2% 증가한 580억 달러를 기록. 2019년 한 해 앨버타주는 8억 7천만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향후 2년간 매년 150억 달러를 빌려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

예산 삭감 주요 내용

○ 주요 도시에 대한 교부금 대폭 삭감

- 앨버타주에 속한 도시는 주정부의 교부금 삭감으로 향후 3년 동안 전체 예산의 9%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

- 특히 주요 도시인 에드먼턴과 캘거리에 대한 교부금을 대폭 삭감해 신규 지하철 프로젝트가 연기. 에드먼턴 남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 종합병원 개원일도 2030년으로 4년 연기
- 공원, 배출량 관리, 어류 및 야생 생물을 위한 예산도 4년 동안 10% 줄일 예정

○ **공공부문 인력 감축**

- 향후 4년 안에 주정부 공무원 규모를 7.7% 줄여 2023년까지 93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이룰 것으로 예상
- 2020년 3월 말까지 공공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764개 일자리를 감축. 주로 예정된 채용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부 해고를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 각 도시는 주정부의 지원금 삭감으로 자체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금 축소**

- 주정부의 지원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대학에 12.5%의 지원금 축소를 단행할 예정. 이미 전 정부의 4년 수업료 동결조치로 운영비 부족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대학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이와 함께 주정부는 대학에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의 수업료를 인상할 수 있게 하면서 향후 4년간 정부 지원금 축소를 상쇄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향후 4년간 학생 수가 약 60,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82억 달러인 현 교육예산 수준을 동결할 계획
- 교육청이 받는 학생당 지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나고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감소할 예정

○ **의료 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

- 주정부의 무상의료 예산은 최근 매년 3% 증가했지만, 향후 4년간 약 1% 증가로 유지할 계획.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관련 예산 증액은 없을 전망
-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 무상의료 예산은 전체 주정부 예산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

○ **환경 부문에 대한 예산 삭감**

- 앨버타주 자체의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인 태양열 집열판 지원사업, 고효율 전자제품 구입 보조금, 지열 난방 지원금, 순간 온수기 지원 사업 등은 예산 삭감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

○ **생활물가 부문**

- 노인들에 대한 세금 공제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 보조비를 동결
- 담배 1갑당 5달러의 세금이 추가 부과되고, 전자담배 세금도 인상될 예정

- AirBnb, HomeAway, VRBO와 같은 온라인 숙박업에도 현재 오프라인 숙박업에 부과되는 관광세 4%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신규 부과금을 고려
- 자동차세는 10% 올리고, 주립 박물관 및 미술관도 10% 인상된 입장료를 받을 예정

각계의 반응

○ **야당 및 주요 도시 시장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임**

- 야당은 예산삭감 내용이 임대료 지원 축소, 간호 비용 감소, 건강 및 교육에 대한 것이어서 저소득층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시
- 또한 법인세를 12%에서 11%로 인하한 데 이어 2022년까지 8%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약 1억 달러의 세수를 포기하는 것이며, 향후 4년 동안 240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 에드먼턴 시장과 캘거리 시장은 한목소리로 이번 예산안이 전진이 아닌 후퇴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비판하였고, 캘거리市는 시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

○ **공무원 및 보건 노조의 반발**

- 주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4개월 연기할 것이라고 선언한 상황
- 주정부 공무원노조, 간호사노조, 교사협회 등은 이번 예산안이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 특히 주정부 공무원노조는 임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선거공약을 철회한 주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

○ **교육 관련 단체 및 대학생의 반발**

- 학생 권리 보호 단체 Students First는 "이번 정부는 부채를 줄이는 데 혈안이 되어 공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고 비판
- 2019년 11월 18일 에드먼턴 시내 3개 주요 대학의 학생들이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2019-alberta-budget-will-have-2-8-per-cent-spending-cut-programs-eliminated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alberta-public-unions-fights-ucp-budget-cuts-1.5349076

https://edmonton.ctvnews.ca/university-students-marching-to-legislature-protesting-post-secondary-cuts-1.4690907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30·10 운동' 보급에 힘써

일본 교토市 / 환경·안전

일본 교토市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를 추진하기 위해 ① 연회나 회식 등을 시작하면서 건배 후 30분간은 자기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② 연회 종료 전 10분 동안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음식을 즐길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0·10 운동'을 적극 홍보

배경

○ 일본에서는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한 원인으로 연회나 회식 등을 할 때 음식을 먹지 않고 바로 술잔을 돌리고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이에 교토市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연회, 회식 등에서 ① 음식 주문을 적당히 할 것, ② 연회, 회식을 시작한 뒤 건배 후 30분간은 자신의 자리에서 음식을 즐길 것, ③ 연회, 회식 종료 전 10분 동안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음식을 즐길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0·10 운동'을 추진 중

- 특히 시는 송년회·신년회를 앞두고 '30·10 운동' 보급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시행
  - 12월 및 1월 금요일에 거리나 음식집 등에서 '30·10 운동'의 실천을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의 광고를 하거나 철도역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도모

주요 내용

○ '30·10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음식을 주문할 때 적당량을 주문하도록 유도
  - 고령자 등에게는 연회 등에서 나오는 음식의 양이 많을 수 있어, 양보다 질에 신경을 쓴 메뉴 개발에 대한 협조를 음식점에 요청
- 음식점 연회석 등에 '30·10 운동'의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 부착
- 연회 등의 사회자가 연회의 시작 때와 종료 10분 전에 '30·10 운동'의 취지를 안내
- 연회를 시작하면서 건배 후 30분, 종료 전 10분간은 자기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유도
-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참가자가 가능한 한 가지고 돌아가는 방향으로 유도

○ 시는 '30·10 운동' 등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음식물 쓰레기 제로 추진 점포'로 지정

- ‘음식물 쓰레기 제로 추진 점포’로는 식재료를 모두 사용하는 대책, 음식물 찌꺼기 배출 관련 대책, ‘30·10 운동’ 등 연회나 관혼상제 관련 식사에 관한 대책, 남은 음식물 포장 관련 대책,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수분 제거 대책, 일회용 제품 사용 억제 대책, 음식물 쓰레기 제로를 위한 계몽 활동, 기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 중 2개 이상의 대책을 실천하는 점포를 선정

효과

○ **시에 따르면, 연회나 회식 등에서 사회자가 ‘30·10 운동’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80%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https://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59987.html

https://www.city.kyoto.lg.jp/sogo/page/0000242949.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2023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을 25%까지 확대

인도 델리NCT / 도시교통

인도 중앙정부의 전기차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델리NCT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 주차요금 등 감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 중

배경

○ **인도 델리NCT 정부는 중앙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신규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자동차 비중을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중앙정부는 2030년부터 전기자동차 판매만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까지 3년 동안 1,000억 루피(약 1조 6천억 원)를 투입하여 전기차 보급을 지원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인도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으로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기준 인도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은 0.06%로 다른 국가보다 미흡한 편이지만, 최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지역단위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심이 증대**

- 인도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노르웨이(39%), 중국(2%)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 및 시스템 구축**

- 교통부를 담당부서로 지정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정책을 적시에 시행

○ **전기자동차 대상 녹색 전용번호판을 발급해 주차비와 혼잡통행료 등 감면 혜택**

- 사륜차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충전식 오토릭샤(삼륜 택시)의 지역 내 보급 대수는 약 10만 대로 추산. 신규 구매할 경우 최대 37,500루피(약 62만 원)를 지원

○ **전기충전식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2만 2천 루피(약 36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차량과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구매비용 보전**

-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동차 제조 및 판매, 금융 서비스, 수리 서비스, 전기 충전소 관련 기존 일자리 전환 대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 특히 구동계(驅動械),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 관련 제조업 대상 직업 프로그램을 계획

○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 충전소를 최소 3km마다 설치할 계획. 구역별 운영사업자 선정은 10년 단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 충전요금은 소비자 편의에 맞춰 현금, 카드, 모바일 결제 등 허용

○ 실시간 충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자동차 수요자 편의를 증진

- 기존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충전소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 제공

○ 전기차는 차량 2부제와 주차정책에서도 우대 적용. 지원혜택은 한동안 계속 제공

정책 평가

○ 전기충전식 차량의 진입장벽 완화와 이용자의 신뢰 구축에 집중

- 구매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전기충전식 차량의 구매 부담 완화

○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 영향 예상

-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재편에 도움
-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확대로 대기오염 감소에 이바지
- 화석연료 수요 감소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부담 감소



[그림 1]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림 2] 전기충전식 오토릭샤

https://inc42.com/buzz/delhi-government-pushes-electric-vehicles-for-delivery/

https://inc42.com/buzz/green-number-plates-low-fees-and-real-time-info-delhi-govts-ev-benefits/

https://livemint.com/politics/policy/delhi-government-to-come-out-with-policy-on-electric-vehicles-15677 58517726.html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delhi-govt-exempts-electric-vehicles-from-odd-even-schem e/articleshow/71879742.cms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고위험 및 노후 건물의 수리 지원 및 진단·관리 강화

프랑스 파리市 / 도시계획·주택

프랑스 파리市는 주거환경을 해치는 위험한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을 대상으로 2019년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과 '특정 주제별 공익 프로그램'을 수립.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건축물 리스트를 공개하고, 주민 가이드 매뉴얼을 제공하며, 건물매매 시 집주인이 '기술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배경과 목적

○ 2018년 말 프랑스 마르세유市의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 화재사고와 몇 달 후 파리시 공동주거지에서의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노후건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 이에 파리시는 시 차원의 고위험 건축물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화재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주거 안전관리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 시는 특정 지역별 '개인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les opérations programmées d'amélioration de l'habitat, OPAH)'과 특정 주제별 '공익 프로그램(les programmes d'intérêt général, PIG)'을 운영

- 파리시 수도권 정비법과 관련 조항(lois du 28 février 2017. Art.25)에 따라 파리시와 경시청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역할 분담과 조치방안을 담은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2019년 6월 7일부터 시행
- 파리시는 위험과 안전관리 관련 법에 따라 파리 도심의 주거시설에 대한 상황별 신고방법을 제시
  -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국번 없이 소방관 호출번호인 18로 전화
  - 고위험 건물의 주인은 시에 신고하면 시에서 수리공사대금을 지원
  - 주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입자는 먼저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이와 관련해 집주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세입자는 국립 주거정보소(Agence nation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NIL)에서 상담할 수 있음

-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ADIL75협회를 통해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밖에 물건을 쌓아놓아 주거환경을 해치거나 이웃에 불편을 주는 경우 시가 개입하고, 빈대나 바퀴벌레, 쥐 퇴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언과 지원방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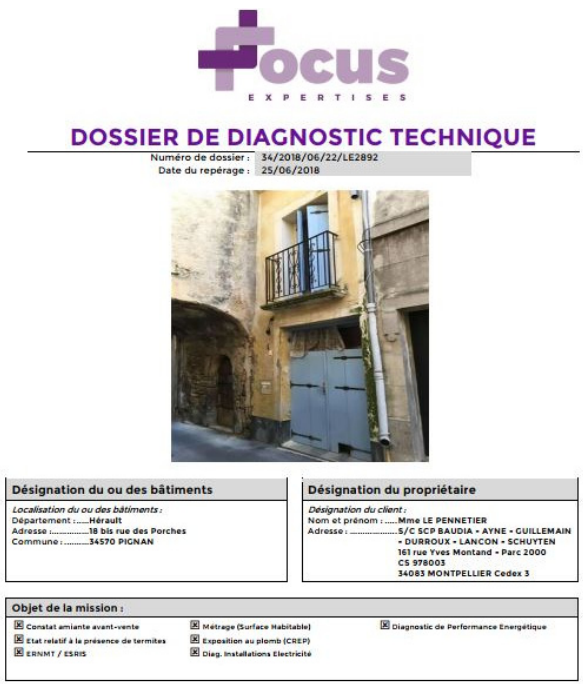
○ **구청별로 고위험 건물로 신고된 건축물 리스트 공개**

- 시는 위험한 건물로 신고된 건물 리스트와 결정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
- 파리 경시청에서는 주택 및 숙박시설의 화재나 안전, 폐가 문제 등에 관여

○ **고위험군 건물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가이드 매뉴얼 제공**

-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주거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유주거(홈쉐어링) 시 발생하는 문제 대처방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주인의 의무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집주인이 건물을 팔기 원할 때 '기술진단서(Le dossier de diagnostic technique, DDT)'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Focus
EXPERTISES

DOSSIER DE DIAGNOSTIC TECHNIQUE

Numéro de dossier : 34/2018/06/22/LE2892
Date du repérage : 25/06/2018

Désignation du ou des bâtiments

Localisation du ou des bâtiments :
Département : ....Hérault
Adresse : ....18 bis rue des Porches
Commune : ....34570 PIGNAN

Désignation du propriétaire

Désignation du client :
Nom et prénom : ....Mme LE PENNETIER
Adresse : ....S/C SCP BAUDIA - AYNE - GUILLEMAIN - DURROUX - LANCON - SCHUYTEN
161 rue Yves Montand - Parc 2000
CS 978003
34083 MONTPELLIER Cedex 3

Objet de la mission :

- ☒ Constat amiante avant-vente
- ☒ Etat relatif à la présence de termites
- ☒ ERNMT / ESRIS
- ☒ Métrage (Surface Habitable)
- ☒ Exposition au plomb (CREP)
- ☒ Diag. Installations Electricité
- ☒ Diagnostic de Performance Energétique

[그림 1] 기술진단서(DDT)의 예

- 이 기술진단서는 미래의 집주인 혹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위험이 예고되거나 위험이 노출된 부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기술진단 후 기술진단서에 명기
- 에너지 관리나 에너지효율에 대한 부분도 조사
- 이 밖에 석면이나 배관 문제, 공용이 아닌 개별 상하수도 배수처리 등에 대해서는 따로 현황보고서 혹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 공인된 기술진단사가 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한 번 발부된 기술진단서는 5년간 유효

https://www.paris.fr/pages/lutte-contre-l-insalubrite-113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diagnostics-techniques-immobiliers

https://www.paris.fr/pages/renover-son-logement-ou-son-immeuble-121/

https://www.google.fr/amp/s/www.capital.fr/immobilier/explosion-rue-de-trevise-a-paris-les-syndics-de-copro-doivent-mieux-lutter-contre-la-vetuste-des-immeubles-1323197%3famp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diagnostics-techniques-immobiliers

김 나 래 통신원, naraetravaux@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70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12월 23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